



ICID 모스크바 회의를 다녀와서...

김영득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KCID YPF 위원

ICID 모스크바 회의는 무려 3주나 소요된 VISA와 관련된 초청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추진된 모스크바 회의 참석은 여러 가지 인상을 남겨 주었다. 공산주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러시아 사회,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기억들, 소득 2,000불의 국가이지만, 다차에서 그들만의 여유를 즐기고 사는 러시아인, 짧지만 11일간의 러시아 모스크바 회의와 러시아 여행을 통해 체험한 러시아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해 본다.

먼저, 러시아의 현재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비운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스 2세와 아나스타샤(Anastasia)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1991년 에카테린부르크 근처의 숲에서 암매장된 아홉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역사학자들은 1918년 니콜라스 2세와 황후, 다섯 자녀와 시종 등이 총살된 뒤 부근의 숲에 버려졌다는 기록에 따라 이것이 니콜라스 2세 가족의 시신이라고 짐작했고, DNA 검사결과 그의 가족과 시종이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차르(황제)인 니콜라스 2세는 알렉산드라라는 부인과 아나스타샤를 포함한 네 명의 딸 그리고 막내아들 알렉시스가 있었다. 그들은 왕으로서 최상의 생활을 했지만 왕위를 계승할 알렉시스가 혈우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었다. 알렉시스는 항상 통증으로 고통을 받았고 그 모습에 어머니 알렉산드라도 괴로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그녀를 위안해 주고 신비한 능력으로 알렉시스의 통증을 없애준 사제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라스푸틴이다.

라스푸틴은 지독한 알콜중독자 인데다가 권력욕이 강했다. 그를 많은 사람들은 경계했지만 알렉산드라는 그를 옹호하며 더 많은 권력을 주게 된다. 하지만 권력에서 비껴나야만 했던 왕족들과 혁명의 불길에 휩싸여 있던 민중들은 그를 공적으로 지목하게 되었고, 신변의 위험을 느낀 그는 섬뜩한 저주의 편지를 니콜라스 2세에게 보내는 등 최후의 발악을 했다.

차르의 조카 이리나의 남편인 요소포프가 왕의 인척에 의해 죽음을 당한 라스푸틴의 저주 때문인지 1917년 2월 혁명을 통해 니콜라스 2세 가족은 왕위에서 쫓겨나 시베리아의 토볼스크로 유배되고 10월 혁명으로 카렌스키 정부도 무너지던 뒤에는 시베리아의 또 다른 도시 에카테린부르크로 이송된다.

그리고 1918년 7월 16일, 끝까지 그들과 함께 했던 황궁의 시종들과 함께 니콜라스 2세 부부와 그들의 다섯 자녀는 처형당하게 되고 그들의 사체는 비밀리에 암매장됨으로써 로마노프 왕조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정」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막내딸 아나스타샤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전 러시아에 퍼지기 시작했다. 특히 해외로 도피하는 데 성공한 몇몇 로마노프 왕족들은 권토중래를 꿈꾸며 그 소문에 불을 지폈고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살아남은 아나스타샤라고 주장하였었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급속한 변화를 가져온 국가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것 같다.

1900년 초 열강속에서 힘겨루기와 2번의 세계대전을 치루고, 공산혁명과 공산주의의 몰락, 구한말 일본과 열강들의 수탈과 한국 내전등 비운의 현대사를 가진 우리나라와 러시아, 이제 겨우 시장경제를 도입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있지만, 가야할 길이 멀기만 한 두 나라이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모스크바 시내를 둘러볼 때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들과 거리는 대륙기질의 러시아인들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또한 거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십미터나 되는 리무진과 고급승용차들은 시장경제 도입으로 더욱 깊어져만 가는 빈부격차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러시아인들은 술을 마셔도 쓰러질 때까지 마신다고 한다. 그렇게 마셔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 그만큼 화끈하고 열정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독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이들의 내면과 어두움을 어림잡작할 수 있다.

처음 러시아에 도착해서 의아해 한 것중 하나는 회의장과 호텔에서 만나는 러시아인들이 웃지 않고 사무적이라는 것이다. 몇몇 나라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이처럼 무뚝뚝하고 불편한 것은 러시아인 뿐인 것 같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 러시아와 유사하다. 외국인이 본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떠올렸다. 국제경쟁력이 없는 대한민국, 외국인과 외부인에 대한 무뚝뚝하고, 배타적인 우리민족, 아직도 여기저기서 부패의 고리가 영켜 있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러시아에서 보게 된다.

9월 9일 회의일정이 없어 일명 황금고리중 하나이고, 러시아 정교회의 본산인 『세르게이에프 파사드』라는 옛도시를 향해 출발하였다. 가는 길에 러시아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다차』(주말 농장 혹은 별장)를 방문하고 싶었다. 모스크바를 불과 20분도 안 벗어났는데 아파트만 있던 모스크바와는 달리 아담하고 작은 이층집들이 거리 양편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다차라고 한다. 다차는 1990년초에 정부에서 모스크바 시민들의 여가를 위해 무상 분배했다고 한다.

필자는 러시아의 외곽을 보면서 러시아인들이 여가와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알 수 있었지만, 러시아의 광활한 땅과 자원을 보며 아픈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넓고 광활한 땅을 두고, 식량이 없어서 굶는 사람과 빵을 사기 위해 줄서 있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이다.

1990년 말 학창시절 러시아가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혼란, 이것이 한동안 세계뉴스의 상당면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먹을 것을 찾아서 몸부림치고, 심지어 몸을 파는 모습을 세계는 목도하였다. 러시아의 과거와 현재를 보며 그 많은 자원과 넓은 국토를 놓고 이럴 수 밖에 없었던 사회 시스템, 그것이 사회주의의 실상이었던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시스템이 이런 점과 너무도 유사한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주어 답을 수 없었다.

우리에게 러시아와 같은 일이 없으란 법이 없다. 이제 막 1만불 시대를 넘었다가 주저앉고 다시 이제 턱걸이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여행이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러시아에 머무는 동안에 러시아 북오세티야 베슬란에서 발생한 초등 학교 인질사태가 있었다. 이 인질사태로 1,500여명 가운데 어린이 155명을 포함해 394명이 사망하고 실종자가 260여명이 넘게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모스크바 시민들이 반



테러 데모를 붉은 광장에서 했다. 회의 개최가 그 다음날 선언되었는데, 러시아에서는 노래와 춤 공연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국제행사인 만큼 희생자 추모를 위한 곡들로 개회공연이 있었고,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개폐회식이 공산당 전당대회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수료증을 특별제작하여 배포해 준 것이다. 회의가 전반적으로 마치 덜 익은 감처럼 미숙한 점,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그들의 사회상을 엿본 후 크게 불쾌하지 않은 회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러시아를 찾는다면, 러시아어를 공부해 그네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고,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독립투사들의 고향을 방문해 보고 싶다.



회원동정

■ 주소변경

한상욱 : 농어촌환경기술연구소 이사장
한국관개배수위원회 고문
농공회 회장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문정레미안아파트 129동 1702호
전 화 : 02-407-1406